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생방송 전화 인터뷰

(2023. 3. 22.(수))



인터뷰 원고

「좋은 아침」 초대석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사천시가
조기 개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민과 사회단체등이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동식 사천시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지난 2일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요구하는 사천시에는 반가운 소식이죠?

예,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역할로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과 민군 국제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재 확보와 조직운영에 유연성을 갖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혜택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결국 우리 사천시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입법예고까지 진행 된만큼 이후 국회 의결까지 조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부 목표인 연내 개청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그런데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조직의 경우 법률에 설립지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포함된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고,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79번째에 우리 사천을 설립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설립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립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만 크게 부풀려서 여론을 조장하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국회에서 특별법을 두고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으로 유치하고 국단위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우주항공청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우주항공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청장에게 우주항공과 관련 정부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일부 의원들은 우리나라에는 청 단위 규모는 필요하지 않다며 우주항공청을 국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이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작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우주전담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대전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우주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특별법과 우주항공청 설립방향에 대한 아쉬움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이후에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며, 우주강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3-1. 우주항공청, 왜 사천인가요?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국내 우주산업 중심인 경남에서도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던 2015년,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우주항공 전담부서인 ‘우주항공과’를 설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천이야말로 우주 정책기구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은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이 일치하는, 최초의 지방 공공기관 설립사례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자, 지방시대 개막의 상징이라는 명분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4. 여기다 지난 15일 정부가 15개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대전에 나노와 반도체, 우주항공 특화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대전과 사천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한 우주항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작고 사소한 것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되고, 대전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분야는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무궁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데요,

사천, 대전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전남 고흥도 우주발사체 국가 산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경남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로서 경남과 전남 그리고 대전이 지정되었습니다. 특화분야에 맞게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경남도와 함께 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국회를 향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 의결에 동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죠?

예,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경남도민, 사천시민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고 계십니다.

대전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주전담조직이 없었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감대 형성 실패로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 KF-21 시험비행 성공 등 우주항공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지금은 전 국민께서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계시며, 사천, 대전을 떠나서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랜 우주항공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우주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년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시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우주항공청 설립은 사천시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경남도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천시는 미래 우주항공도시로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거점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와 힘을 합쳐 우주항공청과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주거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이 완비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직원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경남도가
원팀이 되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직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산업체와
관계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들까지
우주항공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세종에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의 의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경남도와 함께
'미래 우주항공도시'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동식 사천시장이었습니다.